

아트사커 ‘월드컵’ 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15일(현지시간) 러시아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FIFA(국제축구연맹) 월드컵 결승전 프랑스와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서 4-2로 이긴 프랑스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랑스, 20년만에 정상...데상 감독 역대 세번째 선수-감독 우승

평균연령 20대 젊은피 탄탄한 수비·빠른 역습 크로아티아 압도

모드리치 골든볼·케인 골든부트·쿠르투아 골든글러브·음바페 영플레이어상

프랑스 4:2 크로아티아

‘뢰블레 군단’ 프랑스의 우승으로 33일만에 걸친 2018 러시아 월드컵 대장정의 막이 내렸다.

프랑스가 16일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동유럽의 복병’ 크로아티아와의 대회 결승전에서 4-2로 승리하면서 20년 만에 월드컵 정상 탈환에 성공했다.

자국 대회였던 지난 1998년 이후 통산 두 번째 우승에 도전했던 프랑스는 상대의 자책골과 함께 앙투안 그리즈만, 폴 포그바, 킬리안 음바페의 연속골을 앞세워 러시아 월드컵의 주인공이 됐다.

1998년 자국대회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우승의 기쁨을 누렸던 프랑스의 디디에 데상 감독은 사령탑으로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화제의 인물이 됐다.

초반 흐름은 이번 대회에서 ‘투혼’을 발휘한 크로

아티아가 주도했다. 세 경기 연속 연장 혈투를 벌이며 결승에 오른 크로아티아는 예상과 달리 빠른 돌파로 프랑스를 위협했다.

하지만 행운의 여신은 프랑스편이었다. 전반 18분 오른쪽 프리킥 기회에서 키커로 나선 그리즈만이 왼발로 크로스를 올렸다. 그리고 수비에 가담한 크로아티아의 공격수 마리오 만주키치가 공중볼 경합을 위해 뛰어올랐고, 공은 만주키치의 머리에 맞고 그대로 크로아티아의 골대로 빨려 들어갔다.

자책골을 내준 크로아티아는 이번 페리시치의 골로 이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전반 28분 혼전 상황에서 공을 잡은 페리시치가 오른발로 한번 공을 찼을 뒤 왼발로 마무리를 하면서 골망을 흔들었다.

그러나 전반 38분 ‘그리즈만의 골 =프랑스 무패’라는 프랑스의 승리 공식이 가동됐다.

크로아티아 페리시치의 핸들링 파울이 나왔고, 비디오 판독 끝에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키커로 나선 그리즈만은 선방쇼를 이어왔던 크로아티아의 수문장 니엘 수바시치를 속이고 왼쪽 골대를 뚫었다. 2-1로 전반전을 마무리한 프랑스는 후반 14분 폴 포그바의 세 번째 골로 환호했다.

수비 진영에서 공을 잡은 포그바가 음바페를 향해 침투 패스를 날린 뒤 전방으로 진출했다. 그리고 포그바는 오른발 슈팅이 상대 수비수를 맞고 흘러나오자 다시 공을 잡아 왼발로 골망을 흔들며 3-1을 만들었다. 이어 후반 20분에는 역사적인 골이 기록됐다. 프랑스의 ‘19세의 골잡이’ 킬리안 음바페가 오른발 슈팅으로 이번 대회 4번째 골을 기록하며,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이 골로 음바페는 1958년 브라질 대회 펠레 이후 60년 만에 결승전에서 골을 넣

은 10대 득점자가 됐다.

세 경기 연속 연장 승부라는 놀라운 투혼을 이어왔던 크로아티아는 4분 뒤 만주키치를 앞세워 만회골을 넣었지만, 패기와 힘으로 맞선 프랑스의 벽을 넘지 못했다. 1998년 프랑스 대회 4강에서도 프랑스에 1-2로 막혔던 크로아티아는 20년 만의 ‘리턴 매치’에서도 설욕에 실패했다.

한편 4위 잉글랜드의 골잡이 해리 케인이 6골로 득점왕인 골든부트의 주인공이 됐다.

크로아티아의 주장 루카 모드리치는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월드컵의 최우수선수상인 골든볼을 받았다. 벨기에의 수문장 티보 쿠르투아는 최우수 골키퍼상인 골든글러브의 영예를 안았다. 또 만 21세 이하 선수에게 주는 영플레이어상은 음바페에게 돌아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나상호 태극마크 달았다

AG 축구대표팀 엔트리...손흥민·조현우·황희조 와일드 카드 합류

프로축구 광주 FC의 프랜차이즈 스타 나상호가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한다. 김학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감독은 16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오는 8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나설 20명의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다.

광주 공격수 나상호와 함께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포항에서 임대 영입한 미드필더 이승모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광주 U-18 출신으로 올 시즌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로 이적한 김정민도 대표팀에 발탁됐다.

금호고를 졸업한 광주 유스 출신의 나상호는 '2013 아디다스 올인 챌린지리그' 득점 1위(13골), '2014 아디다스 올인 K리그 주니어' 최우수선수상과 득점왕, 공격 포인트 1위를 모두 휩쓸며 차세대 골잡이로 평가받아왔다.

지난해 광주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한 나상호는 초반 부상 등으로 부침을 겪었지만, 시즌 중반 김학범 감독이 새로운 사령탑으로 부임한 뒤 전 경기(12경기)를 소화하면서 진가를 발휘했다.

나상호는 지난 15일 수원FC와의 경기에서 시즌 9번째 골을 기록하는 등 현재 K리그2 최다득점 1위(19경기 9득점 1도움)에 올라있다.

광주가 포항에서 임대 영입한 이승모는 2013년부터 다수의 국제대회(AFC U-16 챔피언십, 2015 U-17 월드컵, 2016 수원JS컵, 2017 U-20 월드컵)에서 활약했다. 나상호와 함께 U-23 축구



구)와 함께 황희조(김바 오사카)가 와일드카드로 선발됐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명단(20명)

▲GK= 조현우(대구), 송범근(전북) ▲DF= 황현수(서울) 정태욱(제주) 김민재(전북) 김진아(인천) 조유민(수원FC) 김문환(부산) 이시영(성남) ▲MF= 이승모(광주) 장운호(전북) 김건웅(울산) 황인범(아산) 김정민(FC리퍼링) 이진현(포항) ▲FW= 나상호(광주) 황희조(김바 오사카)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잘츠부르크) 이승우(베로나)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국가대표팀에서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나상호는 “해의 경험도 많고, 경기력 면에서도 최고의 선수들이 모였다고 생각한 다”며 “주눅 들지 않고 냉정하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나를 한층 성장시키는 계기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러시아 월드컵에서 맹활약한 손흥민(토트넘), 조현우(대



웃음꽃 핀 ‘남북 탁구’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에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하는 여자복식 한국 서효원-북한 김송이가 16일 대전 중구 한밭체육관에서 첫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대전일보=신호철 기자

손흥민 병역문제, 아시안게임서 풀릴까

축구 대표팀의 에이스 손흥민(26·토트넘)이 병역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손흥민은 16일 발표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팀 명단에 3명의 와일드카드 선수 중 1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이 23세 이하 대표팀(U-23) 대표팀과 함께 내달 개막하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 병역 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명실상부 한국 정상급 선수고 대표팀에 단골로 승선한 손흥민이지만 동년배 선수들이 받은 병역 혜택을 잇따라 놓쳤다.

2010년 처음 성인 대표팀에 소집된 손흥민은 한부르크 소속이던 2012 런던 올림픽 U-23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가 빠진 대표팀은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수확했고, 출전 선수들은 올림픽 동메달 이상 병역 혜택 규정을 적용받아 병역 문제를 해결했다.

만 26세가 된 손흥민에게 이번 아시안게임은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K리그 경험이 없는 그는 만 27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 국군체육부대에서 뛸 수도 없다. 아시안게임에서 병역을 해결하지 못하면 경력 단절은 피할 수 없다. 토트넘도 상황을 잘 알기에 2018-2019시즌 초반 그의 공백을 감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